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호응'

도·전북경제통상원, 청년 근로자 450여명에 일자리·문화여가·건강검진 등·2년 근속시 1000만원 인센티브 지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의 특별지원 프로그램(문화여가생활비, 건강검진비, 취업성공물품)이 청년근로자부터 큰 호응을 얻어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기업에는 1인당 16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정규직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촉진사업이다.

기업에는 인력수급을 돕는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에게는 일자리 마련과 장기근속 유도, 지역 정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올해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45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특별지원 프로그램으로 문화여가생활비, 건강검진비, 취업성공물품 등을 지원해 청년 근로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 채용된 260여명

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취업 성공 물품꾸러미도 선물하며, 2년 이상 근속 시 최대 1000만 원의 특별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 청년들이 문화·여가,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 및 근속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으로 취업에 성공한 박세현(여)씨(오)시스템, 군산)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좁은 취업시

장 문을 뚫고 취직하게 돼 기쁘다"면서, "특히, 최근 후에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비용과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검진비용까지 지원을 받게 돼 기쁨이 배가 된다"고 말했다.

운동유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선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여가 등 종합지원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휴가철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합동 점검

도내 야영장 88개소 점검... 위반시 야영장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휴가철 야영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오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월 16일까지 도내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을 점검해 오수의 부적절 처리로 인한 수질 오염 예방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도내 야영장 135개소 중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47개소를 제외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88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오수 무단배출 확

인), △방류수 수질 적정 여부, △기울기 관리인 선임 여부, △내부청소(연1~2회)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시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휴가철 물환경관리과장은 "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해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휴가철 야영장 이용객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2021년 야영장 73개소를 특별 점검해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해 과태료(4,400원)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점검 때 위반업소의 개선 이행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김경수기자

서거석 교육감 "농업인 어려움 함께 하겠다"

전북 쌀 지키기 88릴레이 챌린지' 동참... 도내 기관장 중 2호로 참여

서거석 교육감이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 2호로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20일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 전북 쌀 지키기'라는 문구가 새겨진 꽃말을 들고 사진을 찍은 뒤, 전북교육가족이 전북 쌀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는 범시를 뿌린 후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농부의 손을 88번 거친다는 의미로, 도내 기관장 88명이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쌀 소비 촉진을 홍보하는 취지다.

현재 산지 쌀값은 전년동기 대비 20% 가량 하락한 80kg 기준 18만 원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

수준이며, 재고과잉으로 금년도 수확기 벼 값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하루

두 끼는 밥심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밥도민 대상 쌀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 중이다.

서 교육감은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전북교육을 위해 건강한 식습관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도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전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쌀 값 폭락은 식량주권의 위기, 농업·농촌의 위기인 만큼 최소한 하루 두 끼 식사는 밥을 소비해 농업인도 지키고,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인 전라북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대학생 국제개발협력(ODA) 포럼 개최

전북국제교류센터, 도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강화에 기여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2022 대학생국제개발협력포럼을 22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제교류센터가 KOICA(한국국제협력단)-KAIDEC(국제개발협력학회)가 공모한 ODA학술활동 지원사업에 2회 연속 선정되어 진행됐다.

센터는 대학생으로 조직된 국제개발협력 포럼 조직위원회와 함께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시선으로 고민하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포럼은 정규세션 및 특별세션을 포함한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최근 이슈를 주제로 토론을 가진다.

이와 함께 초대식 KCOC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의 기조강

연과 국제개발협력 분야 청년 활동가와의 만남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진로와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도내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과 공동 운영하며 올해는 국제NGO인 헤ifer 코리아(Heifer Korea)와 함께 ODA사진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해외진출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년들이 주도하는 국제개발협력 포럼을 전북에서 주관하며는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휴가철 맞아 식품접객업소 등 집중 단속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피서지 주변 100곳

9개반 36명 합동단속반... 무신고영업행위 등 점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도민의 휴가철 건강권 확보를 위해 피서지 주변 식품 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약 100개소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단속반은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주지방검찰청 식품 담당 검사 주관으로 도·시·군 생활안전지킴이 참여하며 9개 반 36명으로 편성했다.

또한 단속 효율 제고를 위해 사전

에 검찰청에서 단속 절차, 민원 대응 방법 등 유관기관 회의도 진행한 상태이다.

단속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다.

분야별 단속사항은 △식품위생법의 무신고영업 및 시설 내 위생 상태,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공중위생관리법의 고의·고질적 무신고

숙박 영업 여부, 숙박시설 청결관리 및 숙박요금표 게시사항 여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원산지 혼동표시 여부, 축산물의 무표시 등 부적절한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경남 김해에서 60대 남

성이 살모넬라 식중독 감염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리 관제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다중이용시설인 음식점 및 숙박업소 단속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휴양객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식품취급업소 종사자는 꼼꼼한 식품안전관리를, 소비자는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도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Boot-On 캠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군산 에어본호텔에서 '스타트업 Boot-On 캠프'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센터에서 올해 추진 중인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전북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선정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정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인 커리큘럼은 △창업지원사업과 창업정책 이해를 위한 기초 교육 △기술사업화 기초 및 전문 교육 △회

계 세무 기초 교육 △전담 멘토와의 그룹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한 (예비)창업자의 기초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그룹 심화 멘토링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센터는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1:1 전담멘토 상시 멘토링, 시제품 고도화를 위한 시장검증, IR 데모데이 등 각종 창업 교육 및 도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스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원광대 2학기 군산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스피치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전주전통문화와 원광대수업역량
- 전주내일목사장
- 한스스피치 · 공현희의 전북외향
- 전북의제30주년 및 기관, 단지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나눔, MBC TV, JT, LB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사범네스트 · 송영록교사 · 심리상담사
- 세계 "665 스승의 날" 캐리커, "나쁜 배운, 빛, 보, 빛"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음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제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미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8월 29일까지
- 개강: 9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15만원
- 문의: 010-8448-2570
- 전담교수: 문정태(미술지도사, 치매안지늘이희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